“지구를 위한 1시간의 선물”…영원무역, ‘어스아워 2022’ 참가

영원무역(회장 성기학)이 26일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자 전등 끄기 실천 캠페인인 ‘어스아워(Earth Hour) 2022’에 동참했다. 작년보다 참가 규모를 늘려 총 6개 사업장에서 올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약 27%가량 증가한 약 175kwh의 전력을 아꼈고, 어린 소나무 약 1050그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우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선도 나선다

SUV에서 고성능까지…‘e-트론’ 라인업 확장

아우디가 순수 전기차인 e-트론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우디 e-트론은 미래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최신 기술과 편의 기능을 갖춘 아우디의 DNA와 기술을 이상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전기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를 시작으로 아우디는 ‘아우디 e-트론 스포트백’, 아우디 ‘e-트론 GT 콰트로’, ’아우디 RS e-트론 GT’ 등 SUV에서 고성능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의 폭을 확대해 왔다.

e-트론은 아우디의 DNA와 기술을 이상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전기차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컴팩트 세그먼트 순수 전기 SUV ‘아우디 Q4 e-트론’(왼쪽)과 고성능 모델 ‘아우디 RS e-트론 GT’. 사진제공 | 아우디

21년 수입 브랜드 전기차 판매 1위 컴팩트 전기 SUV ‘Q4 e-트론’ 출시 최대 520km 주행·세련된 외관 인기 충전 대행 등 특별한 서비스 제공

●컴팩트 전기 SUV ‘Q4 e-트론’ 높은 관심

아우디는 2021년 총 1553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전기차 판매를 달성했다.

특히, 고성능 모델인 ‘아우디 RS e-트론 GT’는 지난 2월 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퍼포먼스’와 ‘올해의 디자인’ 2관왕에 오르며 우수성과 인기를 다시 한 번 입증한 바 있다.

2022년 아우디는 기존 대형차량 위주의 전기차 라인업을 중소형까지 확대해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라인업 확장 및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우디 Q4 e-트론’은 아우디가 처음 선보이는 컴팩트 세그먼트의 순수 전기 SUV로 2021년 4월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됐다. 출시 이후 지난해 글로벌 마켓에서 2만1098대를 출고하며 아우디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를 달성한 ‘아우디 Q4 e-트론’은 앞으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다. 국내 시장에서는 2021년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공개와 동시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우디 Q4 e-트론’은 짧은 전방 오버행과 큼지막한 휠, 근육질 차체와 섬세하고 또렷한 라인이 매력적인 전기차다.

최대 520km(WLTP 기준)의 긴 주행거리로 뛰어난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낮은 무게 중심과 균형 잡힌 무게 분산을 통한 스포티한 주행 성능, 정확한 핸들링, 탁월한 안전성을 자랑한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옵션)로 시인성을 강화해 편리한 야간 운전을 도와주며, 세계 최초로 전환 가능한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MMI 터치 시스템을 통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실내는 간결한 동력 구조 덕분에 센터터널이 없어져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에도 넉넉한 레그룸과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10.25 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장착됐으며, 디지털 계기판 제어가 가능한 매끄러운 터치 표면의 스티어링 휠이 새롭게 도입됐다.

‘아우디 Q4 e-트론’에는 모든 주행 속도에서 운전자에게 종횡 방향을 안내해 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운전이나 주차 중 주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우디 버추얼 콕핏 플러스’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다.

●전기차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아우디는 e-트론 전기차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아우디월드(myAudiworl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전반에 대한 정보는 물론 e-트론 전용 메뉴가 충전소 찾기 및 예약, 충전 완료 여부 확인, e-트론 충전 크레딧 카드와 신용카드 연동 및 잔여 금액 확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식 아우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는 충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총 35개의 아우디 전용 150kW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이아우디월드 앱을 통해 예약 후 사용 가능하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충전 대행 서비스인 ‘차징 온 디맨드(Charging on demand)’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아우디는 아우디 컴팩트 부문의 첫 전기 모델인 ‘아우디 Q4 e-트론’ 외에도 A3, Q2 등 컴팩트 라인업 확장을 비롯해 더욱 다양한 신차를 출시해 풀라인업을 완성하고, 프리미엄 모빌리티의 미래를 제시하며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 해제 인수대금 예치하지 않아…재매각 추진

작년 M&A 상황보다 개선…“최단 시일 매각 성사”

쌍용자동차(사진)가 인수 우산협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인수인)과 체결한 투자계약을 해제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3월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 1일)만 허비하여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해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매각 여건이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은 개발이 완료되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글로벌 중국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어 추진 중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와의 CKD 사업도 1월 현지 공장이 착공되면서 2023년부터 연간 3만 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기타 국가의 수출도 미 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이르고 있어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회사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쌍용차 측의 설명이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현대중공업지주, ‘HD현대’로 사명 변경

현대중공업지주가 ‘HD현대’로 새 출발한다. 정기선 사장은 지주사 대표로 선임됐다.

현대중공업지주는 28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제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 사장을 사내이사로, 이지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정 사장은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주주총회에선 이사 선임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사명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다. 권오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룹 창사 50주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의 50년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며, “사명을 ‘HD현대’로 변경하고, ‘투자형 지주회사’의 역할을 강화해 미래 사업 분야에서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서울더플랜치과 문형욱 원장, 美 교정학회지에 제1 저자로 논문 발표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서울더플랜치과 문형욱(사진) 대표원장이 미국교정학회지에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미국교정학회(AJODO)지는 교정치료와 관련해 세계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학회 저널이다. 문형욱 원장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AJODO 학회지 2022년 1월호에 실렸다.

연구는 치아의 저항중심의 횡측 간격을 바탕으로 악궁 형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골격 패턴 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치아교정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횡방향교정이 필요함을 입증했다.

문 원장은 “처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환자에게 더 나은 교정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 같은 연구 결과물이 미국교정학회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해 보다 학술적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논문을 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원 CBCT 분석을 통한 교정진단의 중요성을 입증한 이번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것은 본원 ‘더플랜 정밀 진단’의 가치를 세계적 석학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6			9	
8	5	1					6	
				1	8		4	
		5	7		3			6
7		6				5		3
1			4		6	7		
	6		8	9				
	9					6	3	8
	1			3	2			

	8			2		9	1	
3		9			6			7
6			1				3	
	3			7		1		
4			3		2			8
		5		1			6	
	5				8			1
2			9			5		4
	4	8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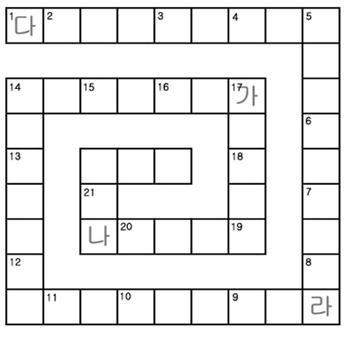
■ 스도쿠정답

4	7	6	3	2	9	1	8	5
8	3	5	6	1	7	2	9	4
2	9	1	4	8	5	6	3	7
5	6	4	1	7	3	9	2	8
3	1	7	2	9	6	8	4	5
9	8	2	5	4	1	3	7	6
7	4	9	8	5	2	1	6	3
6	5	3	7	6	4	9	1	2
1	2	8	9	3	8	4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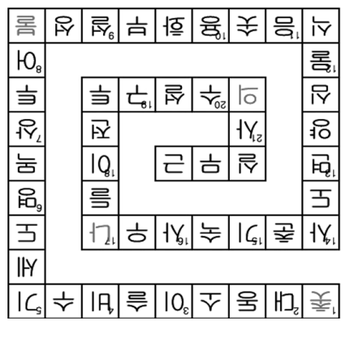
5	8	4	7	2	3	9	1	6
3	1	9	5	4	6	8	2	7
6	2	7	1	8	9	4	3	5
8	3	2	6	7	5	1	4	9
4	6	1	3	9	2	7	5	8
7	9	5	8	1	4	3	6	2
9	5	3	4	6	8	2	7	1
2	7	6	9	3	1	5	8	4
1	4	8	2	5	7	6	9	3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낱말문제



01.초를 꽂아 놓는 기구. 02.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03.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04.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기. 05.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예를 탐함. 06.실제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내세우는 것.‘ㅇ목ㅇ’ 07.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말. 08.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09.눈처럼 흰 살갗과 꽃처럼 고운 얼굴이라는 뜻으로, 미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 10.물 따위가 세찬 기세로 위로 나옴. 11.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12.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방면. 13.남의 수염을 깎아 다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4.육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 15.학교나 회사 따위에 딸려 있어 학생이나 사원에게 싼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16.열기나 증기로 땀을 내고 목욕을 하는 일. 17.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일. 18.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20.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 21.근거가 없음. 또는 터무니없음.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라** 칸을 이어놓으면 영화 제목이 됩니다.